靑 내달말 대대적 인적쇄신 예고

MB '소통'에 방점…지역 인재 중용 관심

총리 포함 최소 5개부처 이상 교체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라디오연설에서 대운하 포기 카드까지 제시하며 '국민 소통'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7월말께 대대적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 통합과 소통을 명분으로 하는 인적쇄신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지역 인맥의 중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고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단계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방미 직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근원적 처방'을 언급한 이 대통령이 불과 2주 만에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선 배경에는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 방안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배경에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 치우친 인사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통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음 달 중순 이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통합과 소통을 상징하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폭적인 개각보다는 중폭 수준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각에서는 총리를 포함한 최소 5개 부처 이상이 교체 대상이며 청와대에서도 수석 및 비서관 등을 포함, 적어도 4~5명 이상의 참모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조만간 2~5급 행정관 가운데 30% 가량인 150여명 정도를 자리 이동시키거나 부처 등 외부기관 직원과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위한 인적쇄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홀대받았던 지역 인맥이 중용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검찰총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충청 출신이 임명됐다는 점에서 중폭 규모 이상의 개각이 이뤄진다면 최소한 복수의 지역 출신이 전격적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도 지역 출신이 중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이 단 2명에 불과하고 실무를 맡고 있는 행정관도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재풀이 타 지역에 비해 협소한 데다 여권 내부의 기류가 지역 안배보다는 실용에 방점을 두고 있어 지역 출신의 중용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관 가운데 정부에서 파견된 인사를 제외하고는 광주·전남지역 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음 달 대폭적인 인사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편중 구조가 어느정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전남도 신임 실·국장 프로필

박만호 행정지원국장 소탈한 이미지에 원만한 성품과 꼼꼼한 일처리가 돋보인다.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무안(57) ▲목포 홍일고 ▲전남대 ▲감사관 ▲기업도시개발팀장 ▲전략산업과장 ▲장흥부군수

서복남 정책기획관 원만한 성품으로 업무를 꼼꼼히 챙기며, 원만한 대인관계로 주변이 신망이 두텁다는 평. ▲보성(55) ▲광주고 ▲조선대, 전남대 대학원 ▲감사관 ▲순천시 의회사무국장 ▲기획관 ▲영암 부군수

이인곤 해양수산환경국장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기술고시(수산)출신으로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화순(50) ▲광주 동신고 ▲조선대, 전남대 대학원·박사 ▲총무과장 ▲어업생산과장 ▲해양항만과장 ▲진도부군수

김동현 광양만권 행정개발본부장 차분한 성품에 정확한 판단력과 합리적인 일처리로 주변의 신망이 높다. ▲순천(48) ▲전주고 ▲한양대 ▲완도부군수 ▲비서실장 ▲감사관 ▲해양수산환경국장

강진원 F1대회지원보좌관 업무능력이 뛰어나며, 폭넓은 대인관계로 대외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 ▲강진(49) ▲동국대 사범대 부속고 ▲건국대 ▲장흥부군수 ▲정책기획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기획단장

'전설이 된 팝의 황제'를 추모하며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올드 타운 광장에서 열린 마이클 잭슨 추모행사 도중 한 팬이 조화와 인형 등을 모아놓은 추모공간에 촛불을 켜놓고 있다. /연합뉴스

"잭슨 사망 前 진통제 투여 안했다"

주치의 "침실에 들어갔을때 이미 무의식상태"

마이클 잭슨 주치의 콘래드 머리는 잭슨이 숨지기 직전에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전했다.

머리의 변호사인 에드워드 체로노프는 2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이나 옥시콘틴을 주사하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치의 머리가 전날 LA경찰에서 3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배석했던 체로노프 변호사는 또 주치의가 잭슨의 침실에 '우연히' 들어갔을 때 잭슨은 이미 무의식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잭슨은 "숨을 쉬지 않았고 주치의가 맥박을 확인했을 때 대퇴동맥에서 약한 맥박이 있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체로노프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주치의 머리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한 소식통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잭슨의 사망 소식을 처음 보도한 티엠지닷컴(TMZ.com) 등 일부 언론은 잭슨이 사망하기 전에 주치의가 강력한 진통제인 '데메롤'을 주사했다고 보도했었다.

체로노프 변호사는 주치의 머리도 잭슨의 죽음에 놀랐으며 죽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주치의 머리는 네바다와 텍사스 주에서 개업하던 심장병 전문의로 지난 5월 잭슨으로부터 7개월간 계속될 런던 공연에 동행하자는 요청을 받고 병원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김정운 극비 訪中은 사실"

FT "이달 10~17일 시진핑 부주석 등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3남 김정운이 중국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복수의 외교.정보·군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운은 지난 10일 극비리에 비행기편으로 베이징에 도착, 중국 고위 인사들과 만났으며 중국 체류기간에 광저우, 상하이, 다롄 등을 차례로 들른 후 17일 평양으로 귀환했다.

김정운의 방중길에는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동행했다고 FT는 밝혔다.

방중 기간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면담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김정운이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했다고 김정운의 중국 체류 일정에 관여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 회동의 초점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 핵무기 실험문제였고, 중국의 채무 탕감, 대북 에너지 원조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FT는 보도했다.

김정운 방중의 주 목적은 김정일 위원장을 이은 북한 권력 승계자로서 정통성을 구축하고, 북한의 최대 맹방인 중국과의 외교적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온두라스 쿠데타…대통령 추방

의회 의장이 대통령직 승계

마누엘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 밀어붙인 개헌 국민투표 개시를 앞둔 28일 새벽(현지시간) 온두라스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 셀라야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로 추방됐다.

이번 쿠데타는 온두라스 대법원이 국민투표 실시를 셀라야 대통령의 재집권 음모에 따른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군부에 셀라야 대통령 축출을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두라스 선거최고법원은 라디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1월29일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확인했고, 온두라스 의회는 헌정중단 사태를 맞아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로베르토 미첼레티 의회 의장을 확정하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셀라야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 공항에서 카라카스에 본부를 둔 텔레수르 TV와의 회견에서 "이번 쿠데타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내 경호원들이 군인들과 30분간 싸우다가 결국 납치돼 코스타리카로 추방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르헨 총선 집권당 참패

28일(현지시간) 실시된 아르헨티나 총선에서 집권 연합이 참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조사와 초기 개표결과, 집권 연합은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데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도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이 백만장자 기업가 출신의 프란시스코 데 나르바에스에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는 전체 유권자의 40%가 몰려 있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혀왔다. /연합뉴스